

오디 생산에 적합한 뽕나무 재배법개발

성규병, 남학우, 김현복, 홍인표, 정인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지금까지 오디는 양잠산업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되어왔으나, 오디에는 많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시대에 적합한 맛과 향이 좋아 즙, 잼, 술등 가공제품이 많이 생산판매 되고 있어, 오디를 과실로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디 생산을 위한 재배법으로 원줄기 길이 1m로 하여 원가지를 3-5개 정도로 유지하는 중간만들기 수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때 뽕나무 재배에 적합한 식재거리는 2X1m(500주/10a)로 하는 것이 2X1.5m(333주/10a)에 비하여 주당수량은 약간 적으나 식재 주수가 많아 단위면적당 수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지 길이를 30, 50, 70 및 90cm로 한 경우, 90cm 처리구에서 오디의 수량이 가장 많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인산과 가리비료를 표준시비량으로 하고 질소 시비량을 표준시비량대비 50% 시여한 처리구에서 오디의 당도가 높았고, 수량도 많았다.

원가지 길이별 주당 가지수는 원가지 길이가 길수록 가지수가 많았으며, 10a당 가지량 및 엽량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재 거리별 주당 가지수는 식재거리가 넓을수록 가지수가 많았고, 10a당 가지량 및 엽량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원가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식재거리가 넓어질수록 가지수가 많아져 오디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